

KIA 외국인 투수 다카하시 영입

브라질 출신 24세 우완 정통파
마이너리그에서 7년간 뛰어
빠르면 9월 중순 투입 가능
KIA 스타일에 맞게 성장 기대



보 다카하시

KIA 타이거즈가 브라질 국가대표팀 출신의 우완 투수를 영입했다.

KIA는 26일 외국인 투수 보 다카하시(24·Bo Takahashi)와 연봉 6만 달러, 이적료 10만 달러 등 총액 16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일본계(3세) 브라질 국적의 다카하시는 우완 정통파로 183cm, 체중 102kg의 체격으로 마이너리그에서 7년간 뛰었다. 올 시즌에는 신시내티 레즈의 트리플A 팀인 루이빌배츠 소속으로 18경기에 나와 4.45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3승 7패를 기록했다.

또 마이너리그 통산 131경기에 출장해 평균자책점 4.18, 42승 41패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150km 초반을 찍는 다카하시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을 구사하며 공격적인 투구가 강점이다.

특히 KIA는 뛰어난 운동 능력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주목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우리가 지켜보던 선수다. 젊고, 운동 신경이 뛰어나다는 보고를 받았다. 해외 스카우트를 통해서 직접 봤는데 일정한 투구를 하는 좋은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인 유형의 선수다"고 언급했다.

KIA는 이번 영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다카하시는 KBO리그에 도전하는 첫 브라질 국적 선수다.

윌리엄스 감독은 "브라질 선수라는 점이 흥미롭다. 다른 국적의 선수들과 달리 영입 작업이 낯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비자 절차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은 확정하지 못했다.

또 '육성형 외국인' 선수로 가까운 만큼 앞으로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KIA는 물론 다른 구단들은 메이저 경험을 갖춘, 검증된 선수들을 주로 영입해 왔다.

다카하시는 '순위 싸움'에 방점을 두는 외국인 선수와는 결이 다르다. 일단 비자 발급과 자격 검리 등이 있기 때문에 다카하시는 빨라야 9월 중순에나 투입이 가능하다.

8월 15일 이후 등록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나설 수 없는 규정상 만약 KIA가 '가을잔치'에 진출하더라도 다카하시를 활용할 수 없다.

윌리엄스 감독은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게 된 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끝까지 경쟁하면서 전력을 최대화하고 싶었는데 구단과의 견이 맞았다"며 "최근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은 상황이 아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기용할 수는 없지만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포스트 시즌과는 거리가 먼 상황 또 선발진 육성 고민을 하는 만큼 KIA에는 안정적으로 이닝을 더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다카하시는 아직 메이저 경험이 없는 젊은 선수다. 화려한 이력은 없지만 그만큼 KIA 스타일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브룩스 돌발 변수 속 KIA는 브라질 출신의 젊은 투수를 새 식구로 영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화 유니폼 입을 진흥고 문동주 "김도영과 빨리 대결하고 싶어요"

“류현진 선배님이 롤모델”

올 시즌 고교 '투수 최대어' 진흥고 문동주가 한화 유니폼을 입는다.

한화이글스는 26일 2022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우완 문동주를 선택했다.

KBO 규약상 전년도 성적 8, 9, 10위 구단은 1차 지명일의 1주일 이내에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연고지와 관계없이 1차 지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위였던 한화는 이에 따라 1차 지명권을 행사했다.

화정초-무등중을 거쳐 진흥고에 재학 중인 문동주는 신장 188cm, 체중 92kg의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150km가 넘는 강속구가 강점이다.

올해 고교 무대에서는 11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2.76으로 1승 4패를 기록했다. 48.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72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문동주는 볼넷은 10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안정된 제구도 보여줬다.

문동주는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올해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했는데 한화에 오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프로라는 무대에 서고 싶었고, 하루라도 더 빨리 1군에 올라가는 것을 올 초부터 머릿속에 그리며 투구했다. 코치님들과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워서 매년 15승 이상씩 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를 롤모델로 꼽았던 문동주는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을 언급했다.

문동주는 "지금은 류현진 선배님이 롤모델이다. 지명 순차 바뀌었다(웃음).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다. 입단 과정도 그렇고, 150km를 넘게 던진다는 것과 피지컬도 닮아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또 김민우 선배님은 포크볼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서 함께하며 꼭 배우고 싶다"고 언급했다.

프로에서 가장 대결하고 싶은 상대는 KIA 타이거즈의 1차 지명 선수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이다.

문동주는 "아무래도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김)도영이 라이벌이다. 만약 먼저 뽀하게 되었다면 그 기쁨에 취해 마음가지가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도영이에게 밀린 것이니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된다. 서로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프로에서 대결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피지컬과 자연스러운 투구폼을 장점으로 평가한 문동주는 '경험'과 '변화구'를 앞으로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화 유니폼을 입은 진흥고 투수 문동주.

문동주는 "(고 1패 투수를 시작해서) 투수 경험이 적다 보니 타자와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또 확실한 나만의 변화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치님들께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문동주의 아버지는 대한육상연맹 투척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문준을 장흥군청 육상팀 감독이다.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문동주는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문동주는 "아버지가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운동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야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조언을 듣고 슬럼프가 왔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성격도 외향적인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다"며 "야구 시작할 때 어머니는 반대하셨는데 지금까지 믿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으시도록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0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근대 5종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을 딴 전용태가 26일 KIA-롯데전 시구자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 전용태, 챔스필드서 시구

2020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근대5종의 역사를 새로 쓴 전용태(광주시청)가 낯선 무대에 섰다.

전용태는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롯데와의 경기 시구자로 마운드에 섰다.

전용태는 경기 전 "소속팀이 광주라서 KIA를 좋아한다. 승리 요점이 되면 좋겠다"며 "시구 이야기 나왔을 때 공이랑 안 친해서 걱정했다. 나가서 괜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인싸(인사이드)의 준말로 사교성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을 뜻함)들만 나오는 것이라서 일단 나와봤다. 여개가 약해서 빠르게 달리는 못 던진다. 바운드 불이 나올 수도 있어서 긴장이 된다"고 웃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전용태는 바로 포수 미트를

향해 스트라이크를 쏘아넣었다.

올림픽 이후 전용태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올림픽이라는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많은 분이 알아봐 주시고 바쁘게 보내고 있다. 근대 5종을 널리 알리게 됐다.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근대 5종 팀이 모두 노력해서 만든 결과라서 행복하다"며 "광주 선수하면 그동안 김국영, 정혜림, 백수연 이런 선수들이 언급됐는데 나도 그 반열에 오른 것 같아서 행복하다. 내 이름 뒤에 광주시청이 적히는 게 좋다. 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다음에도 올림픽에서 더 높은 곳에서 서고, 아시아계 임 2관왕하고 뒤에 광주 이름을 날렸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태는 12번 유니폼을 입고 올랐다. 더 높은 곳을 올려보기 위한 번외다.

전용태는 "처음에 코치님과 상의하면서 행운의 번호 77번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다가 앞으로 올림픽에서 1, 2등을 하고 싶으니까 12로 바꿨다. 다음 파리올림픽에서는 1등을 하고 '00번' 유니폼을 입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근대 5종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많이 알려졌으니까 후배 선수들이 근대 5종을 알려야겠다는 생각 대신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하면 좋겠다"며 "나도 금메달을 땀대려면 조금 달랐을 것 같다. 위에 목표가 있어서 달려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된 것 같다. 앞만 보고 달려갈 일만 남았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29일 안방서 선두 김천 잡는다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청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다.

전남은 29일 오후 6시 광양전용구장에서 K리그 2 27라운드 김천상무와의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두 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선두 싸움을 했던 전남은 현재 10승 10무 6패(승점 40)로 4위로 내려왔다. 김천은 13승 8무 5패(승점 47)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전남에는 반드시 잡아야 할 난적, 이번 승부는 '청과 방패'의 대결로 눈길을 끈다.

전남은 K리그2 최고의 방패를 보유하고 있다.

올 시즌 26경기를 치른 전남은 단 20실점으로 상대를 막으면서 경기당 0.77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김천은 반대로 가장 매서운 창을 앞세운 팀이다. 김천은 지난 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무려 6골을 몰아치는 등 올 시즌 26경기에서 39득점을 만들면서 뜨거운 화력을 과시하고 있

다.

전남은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번 경기에서 마음이 급한 쪽은 김천이다.

올 시즌 전남은 김천과의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다. 1위 김천이 올 시즌 아직 승리를 챙기지 못한 팀은 전남과 안양 두 팀뿐이다.

탄탄한 수비로 상대의 흐름을 꺾는 게 전남의 필승 전략이다.

김천은 최근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의 뜨거운 질주를 펼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골키퍼 구성윤이 최근 6경기에서 단 1골만 내주는 선방으로 4승 2무를 만들었다. 팀은 11골을 만들어주면서 힘을 실어줬다.

전남이 '잔물 수비'로 김천을 봉쇄한 뒤 역습으로 구성윤을 뚫고 5경기 만에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의 단짝 해리 케인 토트넘에 잔류

이적을 추진하던 손흥민(29)의 토트넘 홋스퍼 동료 해리 케인(28)이 팀에 남기로 했다.

26일 케인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는 전날 늦은 밤 관중석을 향해 손뼉을 치는 사진과 함께 토트넘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케인은 "올 여름 토트넘에 머물렀다. 그리고 팀의 성공에 100% 집중하겠다"고 적어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로의 이적 작업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케인의 맨시티행 여부는 여름을 뜨겁게 달군 이

슈였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케인은 인터뷰 등을 통해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맨시티로의 이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성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한국시간) 올버햄프턴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이 박수와 환호로 따뜻하게 케인을 환대하자 그의 마음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케인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단짝'의 결단을 환영했다. /연합뉴스